

민주-민평당-바른미래당 후보 8명 경쟁 벌써 '후끈'

순천시

순천시장은 선거는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중훈(65) 시장을 포함해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소속 후보자 8명이 경쟁하는 구도다.

조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가 있지만, 민주당 경선에 뜻을 둔 후보자들도 '내공'이 만만치 않아 경선 결과에 따라 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우선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조 시장은 재임기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국내 첫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등 순천시 발전에 앞장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순천을 생태문화 도시로 탈바꿈시킨 점을 내세우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 소매를 걷어부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민선 3기에 이어 5기와 6기 민선 순천시장을 역임하는 등 사실상 이번이 4선 시장 도전이라는 점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민심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선거를 도왔다'는 선거 개입 의혹도 그



조중훈 시장



안세찬 전 시의원



임종기 시의장



윤병철 전 시의원



허석 전 소장



양효석 회계사

현 시장 3선 도전에 지역민심 변수로 민주 경선 결과 선거판 요동 가능성도

가 풀어야할 과제로 지목된다.

조 시장의 대항마로는 허석(53) 전 한국철학연구소장이 거론된다. 허 전 소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시 무소속으로 나선 조 시장에 석패했던 아픔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되갚겠다는 각오다. 순천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기반을 닦아온 허 소장은 조직을 재정비하며 지역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시절 전남공공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윤병철(55) 전 순천시 의원은 상사범 이사현 불길

을 수변공간 없는 신도심으로 연결해 '수변도시 순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정책선거에 집중하며 표밭 같이 나섰다.

역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의정활동 경험을 풀어 쓴 '정의야 가져, 희망의 세상으로'라는 책을 펴내면서 지지세 물이에 나섰다. 순천시의회를 지낸 안세찬(57) 순천대학교 총동창회장 역시 민주당 경선을 통해 순천시장을 선거에 도전한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창용(68) 시의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순천시장을 선거를 노리는 기도서(55) 전 전남



기도서 전 도의원



이창용 시의원

도 의원은 다음주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다. 두 후보자는 모두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 활동 과정에서 쌓은 지역현안에 대한 밝은 이해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무기로 내세우며 민심을 공략중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는 양효석(51) 회계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민주당 이번엔 순천시에 깃발 꽂나

최근 10년간 선거 내리 패배 국회의원 선거서도 맥 못췌

이번 선거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순천시에 민주당 깃발을 꽂을 수 있는지 여부다. 그동안 민주당은 순천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10년 이내 선거만 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인 시장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말 그대로 백전백패였다.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제6대 지방선거에서는 현 조중훈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5만9671표(득표율 48.13%)를 얻어 민주당 허석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2010년 6월 제5대 지방선거 역시 검사 출신의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6만891표·50.62%)하며 시장 자리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다.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맥을 추지 못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순천·곡성선거구)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의 김성동 후보가 배지를 달았다.

20대 총선(2016년·순천선거구)에서도 시민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선택했다.

또한, 민주당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 일부가 조중훈 현 시장의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조 시장이 민선 3대 순천시장을 재임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 받아 중도 낙마한 점, 민선 6대 시장 재임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 당선에 도왔다 하는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혁신도시 활성화·원도심 발전 내가 책임” 7~8명 출마

나주시

이번 선거에는 7~8명의 후보들이 출마의 뜻을 밝히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역정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인규 현 시장을 비롯해 장행준 나주시의회 부의장, 이용범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 이재창 전 문재인 대통령 조직특보, 이상계 나주배원예농협 조합장 등이다.

또 민주평화당에서는 김대동 전 나주시장, 홍석태 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옥기 현 전남도 의원은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손금주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강 시장은 원도심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나주를 관광·역사·문화·예술이 숨쉬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고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꼽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 공로로 1급 표창을 수상한 장 부의장은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발전을 통해 전통 역사



강인규 시장



이상계 조합장



이용범 부위원장



이재창 전 조직특보



장행준 부의장



김대동 전 시장

민주당 강인규·장행준·이용범·이재창·이상계 민평당 김대동·홍석태 ... 무소속 김옥기 출마

도시인 나주를 문화예술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리더의 도덕성도 강조하고 있다.

나주시청청년회 회장을 역임한 이 부위원장은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젊은층의 지지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또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 전 특보는 1000여명 회원을 갖고 있는 나주지치분권연대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이 전 특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LG 화학 관내 이전과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3선 조합장 출신인 이 조합장은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표밭을 발판삼아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조합장은 인구 20만의 공동체 자족도시 도약과 함께 협의하는 소통의 나주와 상상이 통하는 나주, 나주시민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주요 공약을 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선 김 전 시장은 한전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나주혁신산단 유치와 한전공대 및 에너지 고등학교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옥기 도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김옥기 현 전남도 의원은 손금주 국회의원이 탈당하면서 무소속 출마에 나선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혁신도시의 교육 및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36년간의 공직경험을 내세우고 있는 홍석태 전 나주시 부시장은 원도심 및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농촌이 함께 잘사는 나주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kwangju.co.kr

혁신도시 젊은층 유권자 표심 어디로

나주 인구의 25% 차지 신정훈 비서관 행보 관심

나주시장 선거는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혁신도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배 그리고 나주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지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 각 후보들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조합,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자치분권연대 등의 조직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해 줄지도 관건이다.

혁신도시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인구가 2만8677명이다. 오는 5월에 대방아파트가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 유권자 50%가 30~40대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누가 젊은층의 표심을 흡수하느냐가 당락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는 지역에서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행보다.

나주에서 도의원과 시장,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다져온 신 비서관의 입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비서관을 지지하는 농민조직 등이 여전히 견재한다는 평가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강인규 현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신 비서관의 도움을 받아 현역이었던 임성훈 전 나주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신 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설도 있다.

이밖에도 각 후보들이 ▲원도심 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열병합발전소 민원 ▲엘지화학 증설 등 나주의 미래 청사진과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kson@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역력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